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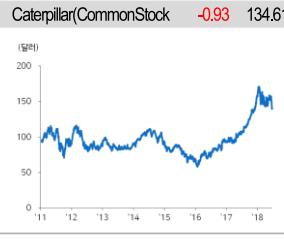
조선/기계 김 현

02. 6098-6699 / hyun.kim@meritz.co.kr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종가 (원)	1D	1M	3M	YTD	PER(x)		PBR(x)		ROE (%)	
				(%)	(%)	(%)	(%)	18E	19E	18E	19E	18E	19E
현대중공업	6,909.6	16.2	99,900	-7.5	-18.1	-31.8	4.1	69.6	33.4	0.5	0.5	0.7	1.4
현대중공업지주	5,570.0	21.6	342,000	-3.5	-15.8	-19.5	-10.2	4.6	3.8	0.6	0.5	14.1	14.7
현대엘렉트릭	7,124	4.4	69,800	-3.5	-15.3	-17.4	-38.8	6.6	5.8	0.6	0.5	9.3	9.7
현대건설/기계	1,377.7	8.6	139,500	-3.8	-15.2	-23.8	-17.5	8.9	6.6	1.0	0.9	11.7	13.9
삼성중공업	4,517.1	17.0	7,170	-2.6	-7.8	-11.2	10.8	45.2	22.4	0.4	0.4	1.0	1.9
대우조선해양	2,744.5	3.8	25,600	-3.8	-7.1	-11.0	84.2	7.7	11.1	0.8	0.7	10.9	6.8
현대미포조선	1,702.0	8.9	85,100	-3.2	-11.8	-17.8	8.1	18.4	13.3	0.7	0.6	3.6	4.8
한진중공업	322.9	6.3	3,045	-2.9	-11.1	-4.5	-8.0	61.3	153	0.4	0.4	0.7	2.8
현대엘리베이터	2,444.2	21.5	90,000	-2.7	3.6	15.4	65.4	15.9	15.5	2.2	1.9	14.6	13.3
두산밥캣	3,117.7	25.7	31,100	-3.6	-8.8	-2.8	-13.1	11.4	10.7	0.9	0.8	7.4	7.6
현대로템	2,465.0	7.0	29,000	-0.7	3.6	80.7	54.7	37.4	25.5	1.7	1.6	4.5	6.3
하이록코리아	353.9	47.9	26,000	-4.4	-10.2	14.3	15.6	11.8	10.8	1.0	0.9	8.8	9.0
성광밴드	320.3	17.2	11,200	-2.2	-15.8	-6.3	12.2	990.1	402	0.7	0.7	0.1	1.8
태광	312.7	12.8	11,800	-2.1	-8.5	-8.5	-2.1	70.5	34.4	0.7	0.7	1.0	2.1
두산중공업	1,798.2	13.2	15,350	-3.8	-17.5	-7.3	0.0	18.4	10.0	0.5	0.5	3.6	5.4
두산인프라코어	2,000.4	16.3	9,610	-3.9	-8.0	-2.3	10.6	6.7	6.2	1.1	0.9	16.3	15.2
두산엔진	131.8	4.1	4,000	1.3	-15.3	-5.6	55.7	-6.6	-10.5	0.3	0.3	-3.0	-3.5
한국항공우주산업	4,103.7	13.4	42,100	-0.7	-5.4	-17.5	-11.3	32.8	23.9	3.3	3.0	10.2	13.0
한화테크윈	1,278.2	12.1	24,300	-4.0	-15.0	-16.5	-31.6	28.9	16.0	0.6	0.6	2.0	3.4
LIG넥스원	925.1	8.9	42,050	-4.1	-7.3	-13.7	-29.7	18.2	12.3	1.4	1.3	8.6	11.4
태웅	324.1	4.7	16,200	-0.9	-12.4	-14.7	-16.3	N/A	N/A	N/A	N/A	N/A	N/A
동성화인텍	188.3	3.8	6,980	-0.4	5.1	-18.4	38.2	-51.3	73.5	22	21	-4.3	3.1
한국카본	269.9	12.4	6,140	0.7	-1.8	-5.5	14.6	33.5	17.4	0.8	0.8	2.5	4.7

주: 카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증권 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표 및 차트**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조선3사, 해양플랜트 일감 동나…수주 총력전**

국내 조선 3사는 해양플랜트 일감 부족인 상황에서, 12월에 선정이 예정된 세브론의 로즈뱅크 프로젝트 수주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알려짐. 로즈뱅크는 조선 3사와 성가풀Corp이 경쟁하고 있음. 로즈뱅크는 올해 예정된 가장 큰 프로젝트로, 총 20억달러 규모로 알려짐. (뉴스)

스크러버 장착선이 유리한 점도 있지만...

스크러버 장착선은 기존 선박에 비해 운임을 끌어 받을 수 있고, 유류비는 더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대부분 선주는 자금조달에 어려움으로 장착하기 어렵다고 알려짐. 또 기존 연료인 고유황유를 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리스크도 있으며, 스크러버 생산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음. (선박뉴스)

"투기성" 발주는 한 밀천 잡아보자는 게임"

러시아 국영선사 Sovcomflot 관계자에 따르면, LNG선의 전망은 밝으나 투기성 발주는 위험하다고 알려짐. 18만CBM급 LNG선 기준으로 올해 평균 용선료는 1일 58,764달러에서 내년 68,500달러로 증가할 수 있단 전망도 있으나, LNG선 수명은 30년 이상으로 장기적 전망이 필요하다고 분석함. (선박뉴스)

Browse bidders remain on pre-FEED tenderhooks

Woodside Petroleum은 총 15억달러 규모의 Browse LNG 프로젝트에 Pre-FEED 입찰을 준비한다고 알려짐. 해당 프로젝트는 FPSO 2기와 Subsea 패키지로 구성되며, Hull과 Topsides는 분리해 발주할 전망임. 관계자는 중국이 수주할 가능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한국은 원가에서 경쟁력이 낮다고 밝힘. (Upstreme)

Rotterdam looks to boost LNG loading capacity

네덜란드 로테르담 터미널은 LNG선 적재능력을 현 수준보다 약 75% 증가시킬 계획을 밝힘. 현재 적재능력인 시간당 2,300CBM에서 4,000CBM으로 늘릴 계획임. 이는 증가하는 LNG 선적 수요에 대응한 투자이며, 이번 여름부터 공사를 시작해 12개월 안에 공사가 완료될 전망임. (TradeWinds)

US stepping on the gas

IEA에 따르면 향후 5년간 LNG 수요 증가에 있어서 미국은 주요 공급자, 중국은 주요 수입원이 될 전망임. 미국은 향후 글로벌 LNG 수출 증가분의 약 75%를 차지하며, 2023년까지 액화플랜트 용량을 30% 증가시킬 전망임. 중국은 탈석탄 정책으로 2023년까지 가스 수요가 60% 이상 증가할 전망임. (Upstream)